

IMF Survey

ASIA 21 컨퍼런스

아시아와 IMF의 파트너십 강화

2010년 7월 13일



한국과 IMF가 한국 대전에서 개최한 Asia 21 컨퍼런스의 공식 만찬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을 펼치는 한국의 예술단원들 (IMF 사진)

- “대전 성명서”를 통해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IMF
- 세계 경제 동력으로 부상한 아시아의 영향력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논의
-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 및 발언권 강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이틀 간의 컨퍼런스를 요약하면서 몇 가지 약속이 담긴 “대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G-20(주요 20 개국)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 해 동안 아시아와 IMF 사이의 파트너십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997-98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아시아와 IMF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인정하고, IMF는 변화를 달성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187 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이 세계 기구가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컨퍼런스는 IMF가 아시아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국 대통령 직속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은 논평했다.

한국 정부와 IMF가 한국 대전시에서 공동 주최한 “Asia 21: Leading the Way Forward(미래를 주도)”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1,000 여 명의 경제학자, 은행가, 애널리스트, 경제 언론들이 대거 참석했다.



Asia 21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한국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IMF 사진)

“이 컨퍼런스는 지난 10여 년 간 아시아가 달성한 성공을 평가하고, 이 지역이 대처해야 할 미래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라고 사공일 위원장은 말했다.

IMF의 약속

스트로스-칸 총재는 컨퍼런스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으며, 이 지역은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도 있는 대규모의 자본 유입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IMF는 아시아 회원국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IMF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과급효과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연계성 같은 교차 주제에 대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 기금은 전세계의 경제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보다 공평한 접근방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 IMF는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기금은 G-20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IMF는 금융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다국가적 접근방법을 포함하는, 체계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 IMF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과 발언권이 더욱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아시아의 의결권을 증가시킨 2008년 개혁 패키지에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다. IMF는 11월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2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은 아시아의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 첫 단계로 IMF가 2010년 10월에 조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주요 회의에서 아시아의 대표자들을 초청할 것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아시아가 IMF를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전세계적인 해결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들은 차세대의 신흥시장국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은 아시아가 계속 번영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고, IMF 총재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아시아의 중추적인 역할

이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은 아시아가 세계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동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정상 이하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시아는 수출을 내수로 전환해야 하고, 계속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시장의 상호연결성이 주 원인이라고 말하는 싱가포르의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정부장관 (IMF 사진)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제공조와 지역공조를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 금융 안전망을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IMF와 협력하여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효과적인 국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안전망에 대한 계획에는 국가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인출할 수 있는 긴급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메커니즘 사이의 스왑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세계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저는 IMF가 치앙마이 메커니즘 같은 지역 금융 안전망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스트로스-칸 총재의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IMF가 많은 변화를 달성했고,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편에서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IMF의 최근의 정책 변화와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을 환영했다. (IMF 사진)

“우리는 지역적인 공동보험과 IMF가 제공하는 세계적인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싱가포르의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정부장관은 언급했다.

“지역 감시와 IMF 감시 중 하나를 채택하기 보다는 2가지 모두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감시는 위기가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간 얻은 교훈은 어디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신속하고 강력하게 파급되는 금융시장의 상호연결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가 실시한 변화를 인정 받은 것에 기쁨을 표시했다. 이 기금은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연성이 향상되었으며(특히 대출에 부과되는 조건에 대해), 전과는 달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위기를 겪는 동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다. “과거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선되었고, 이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원탁회의에서 밝혔다.